

# 올

해 새롭게 불어온 바이오붐을 보면서 기쁜 마음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산업에 대한 편견이 팽배하고 그에 따라 업체가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바이오붐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크게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고위험성과 고수익의 기회를 동시에 가진 산업이다.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에 평균 14년, 약 8억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물질특허제도에 의해 15~20년간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셋째, 바이오산업은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규제가 심하다. 특히 인체 관련 품목들은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뒤따르므로 빠른 산업화를 위해서는 인허가기관과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연구대상으로 동물과 사람의 조직을 가지고 실험하는 분

야인 만큼 종교적·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바이오산업에서 50인 이하 바이오벤처기업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주체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바이오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사업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제품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 좋은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화 가능한 기술을 가공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바이오산업의 위축과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은 단기간의 집중투자와 급격한 산업적 환경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개발 초기단계의 기술선점과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가 다른 어떤 시장에서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바이오산업을 장려하고 시장을 개척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기술이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의 특성상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마케팅하는 구조보다는 기술개발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기술을 제약사 및 중견기업들이 기술이전해 가는 사업모델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내 바이오 부분의 기술이전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이해부족, 바이오벤처기업의 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 기초 인프라의 부족, 지원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700여 개 업체 중에서 최근 직·간접투자를 받은 곳이 5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임을 알고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의 발전 없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근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도약기를 맞아 국내 바이오산업이 기술이전과 같은 네트워크 확대와 장기 투자마인드를 통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OVER THE VENTURE

#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나아갈 길

글 \_ 박중세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장)